퀀틴전시 플랜

노이즈로 순탄치만은 않았던 코스피 4,600 선 안착

FICC 리서치부

정해창 / Strategist Jr.
haechang.chung@daishin.com

이경민 / Strategist
kyoungmin.lee@daishin.com

[Key Point] 다시 시선은 통화정책으로, 1월은 쉬어도 인하 사이클은 유효

- 금요일 미국 증시의 상승과 이슈들을 반영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종가기준 처음으로 4,600선에 안착
-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1월 금리 전망은 동결로 기정사실화, 실업률은 11월 4.5%에서 4.4%로 하락, 그러나 예상(7만명)을 하회한 5만명의 추가 고용자수는 컨센서스를 하회, 여전히 부진한 수치
- 시장에서는 이를 '고용 없는 호황', 경기 연착륙 시그널로 해석. 통화정책 지원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경기와 고용의 냉각 추세를 확인하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

[Issue 1] 미국 정부와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모멘텀

- 트럼프 행정부의 AI산업 지원과 에너지 인프라 투자 모멘텀 지속, MBS 2,000억 달러 매입지시로 주택 수요 개선 및 건설 업황 호조가 예상, 메타의 신규원전 계약과 한국 정부의 원전 계획 유지 등 가세
  원자력발전: 두산에너빌리티(+4.6%), 한전기술(+5.2%), 한국전력(+3.2%), LS(+3.0%) 등
  건설/건설기계: HD현대건설기계(+11.0%), 두산밥캣(+10.9%), 현대건설(+20.2%) 등
- **우주/방산:** 미국 연방통신위원회,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추가 승인 계획
- 쎄트렉아이(+16.1%), 에이치브이엠(+8.5%), 세아베스틸지주(+10.7%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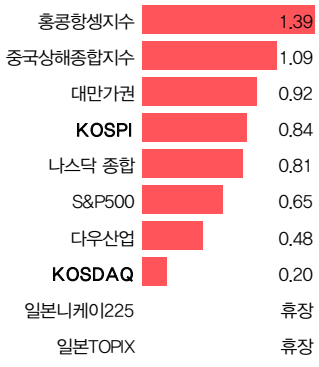
[Issue 2] 노이즈: 시장을 불안하게 한 요인, 연준 독립성과 물가지표 경계심리

- 코스피는 오후 장에서 변동성 증가, 15시경 한때 4,567pt까지 하락
-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연준 본부 개보수 예산 집행 및 의회 증언과 관련한 연방 검찰의 형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불확실성 증가
- 연준 독립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 증시 선물은 하락, 10년물 미국채 금리 상승으로 반응
- 내일(13일) 밤 CPI 물가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 또한 존재. 12월 물가지표는 셧다운 영향을 받지 않는 첫 물가지표로 2.7%로 둔화되었던 11월 물가지표의 물가 둔화 방향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중요. CPI의 시장 예상치는 11월과 같은 2.7%
- 일본 자민당의 중의원 해산 검토, 미국의 이란 개입 가능성 등이 추가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
- 달러-원 환율은 리스크 회피 심리에 1,470원까지 상승. 여러 불확실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

퀀틴전시 플랜 자료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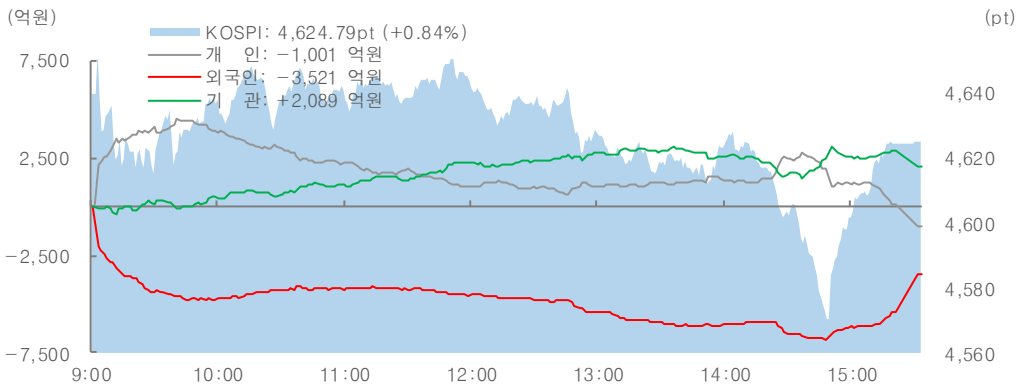
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**퀀트**, **전**략, **시**황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.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,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글로벌 증시 수익률 (%)



주: 아시아 증시 마감 전 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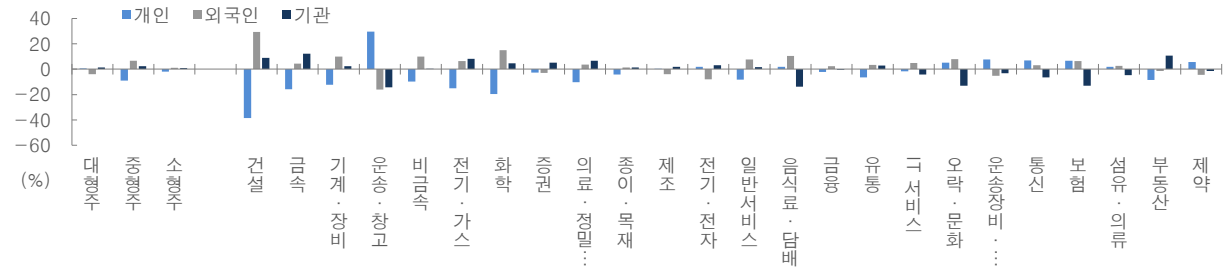
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



자료: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업종별 수익률

업종별 순매수 상대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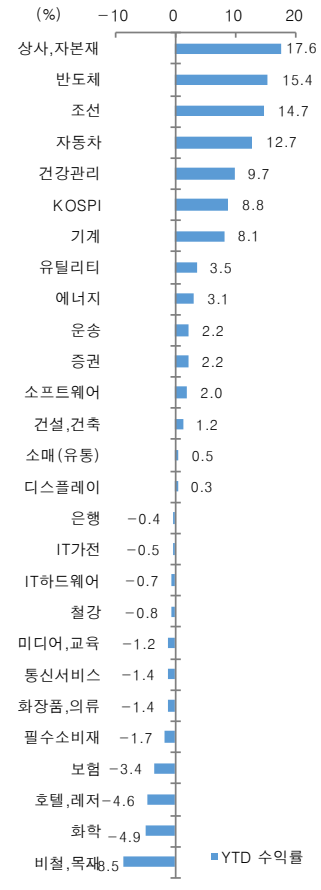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* 순매수 상대강도 = 주체별 순매수금액 / 20 일평균거래대금

KOSPI, 업종별 수익률 추이

주요 지수	전일종가 (p)	1W	1M	3M	6M	12M	YTD
KOSPI	**4,586**	**6.4**	**10.7**	**29.2**	**46.4**	**81.9**	**8.8**
에너지	4,911	3.8	−3.5	13.3	11.8	37.8	3.1
화학	4,254	−2.1	−14.2	9.4	13.0	14.8	−4.9
비철,목재	6,471	−7.0	−16.0	11.3	14.0	23.6	−8.5
철강	2,154	1.1	−2.5	7.9	−4.6	16.9	−0.8
건설,건축	1,539	3.9	0.0	5.9	−2.5	46.3	1.2
기계	9,686	5.4	2.3	21.4	35.3	174.1	8.1
조선	9,998	16.1	5.4	14.7	50.0	112.8	14.7
상사,자본재	4,083	14.9	19.1	28.8	48.3	158.1	17.6
운송	1,802	3.5	3.3	7.5	−3.1	17.1	2.2
자동차	13,365	12.9	11.3	41.7	44.4	49.7	12.7
화장품,의류	4,837	−2.6	−4.8	−6.5	−9.5	26.2	−1.4
호텔,레저	2,204	−2.8	−4.5	−2.6	−7.7	28.5	−4.6
미디어,교육	779	−4.2	5.7	12.2	5.9	40.6	−1.2
소매(유통)	2,025	2.8	−1.8	6.6	−2.0	31.3	0.5
필수소비재	6,696	−1.2	−2.2	−3.9	−8.0	20.9	−1.7
건강관리	11,612	5.9	9.3	32.2	33.6	28.8	9.7
은행	2,666	0.2	−0.7	5.8	3.1	49.9	−0.4
증권	2,293	0.5	3.3	7.6	3.4	72.6	2.2
보험	10,033	−2.7	−2.1	0.0	3.4	39.1	−3.4
소프트웨어	7,306	−0.5	0.1	−0.8	−4.8	24.4	2.0
IT하드웨어	1,360	−3.5	−8.3	30.0	67.5	82.0	−0.7
반도체	23,970	8.9	29.5	67.1	141.5	180.6	15.4
IT가전	1,843	1.3	−14.1	11.1	32.8	6.3	−0.5
디스플레이	708	−0.1	−7.5	−18.0	16.4	18.1	0.3
통신서비스	362	0.2	−1.6	−1.5	−5.1	10.2	−1.4
유틸리티	1,405	5.1	−3.6	26.1	16.0	90.8	3.5

KOSPI, 업종별 YTD 수익률



기준일: 2026.01.09. / 주: Top 5, Bottom 5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[Compliance Notice]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 정해창, 이경민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